광주양궁월드컵 개막…과녁 향해 정조준

2022 양궁 월드컵이 17일 광주시 남구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컴파운드 예선을 시작으로 개막했다. 선수들이 사대에서 과녁을 겨냥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38개국, 268명 선수가 컴파운드, 리커브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2020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을 비롯해 최미선·강채영·이가현(여자부), 김우진·김제덕·오진혁·이우석(남자부)은 18일 오후 열리는 리커브 예선에 출전한다. 결승전은 21~22일 광주여자대학교 특설 무대에서 진행된다. /연합뉴스

전남 김고운 데플림픽 사격 은 2·동 1

〈청각장애인올림픽〉

2021 카시아스두술 데플림픽(청각장애인올림픽)에서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한 김고운(27·전남장애인체육회). /연합뉴스

동생 김우림도 은메달 획득

전남장애인체육회 김고운(27)이 2021데플림픽 사격에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17일 전남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김고운은 최근 브라질 카시아스두술에서 열린 2021 카시아스두술 하계데플림픽(Deaflympics·청각장애인 올림픽)에서 맹활약했다..

광주 출신으로 전남장애인체육회에서 뛰고 있는 김고운은 지난 10일 50m 소총에서 613.6점을 얻어 은메달을 따낸데 이어 12일에는 사격 여자 50m 소총 3자세에서 1144점을 기록해 은메달을 추가했다. 김고운 지난 6일에도 공기소총 10m 결선에서 223.8점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고운은 이번대회에 동생과 함께 출전한 남매 선수다.

어릴 때 열병으로 청력이 떨어진 김고운이 먼저 사격을 시작했고, 청각장애를 지닌 세 살 터울의 김우림이 뒤를 따랐다. 김우림(24·보은군청)은 남자 공기소총 1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들 남매는 데플림픽을 넘어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장애인체육회는 김고운 선수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축하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장애인체육회 소속 육상 이미옥(53) 선수와 채경완(45) 선수는 선전했지만 메달 획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 11, 은 18, 동 13개로 총4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5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데플림픽은 IOC의 승인을 받아 국제 청각장애인 스포츠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청각장애인 세계 스포츠대회다. 데플림픽은 청각장애를 뜻하는 데프(deaf)와 올림픽의 합성어다. '청각장애인올림픽' 또는 '농아(聾啞)올림픽', '세계농아체육대회'라고도 부르지만 2017년 삼순 하계 대회부터 '데플림픽'으로 명명했다. 패럴림픽보다 이른 1926년부터 시작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대학생들이 만든 포뮬러 자동차 대회 '눈길'

영암자동차경주장서 이틀간 열려…호서대 챌린저팀 우승

전남개발공사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전국 대학생 포뮬러 자작 자동차대회'(KFGP STUDENT FORMULA)를 열었다.

이 대회에서 대학생들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직접 제작한 포뮬러 자동차로 성능을 겨룬다.

'2022전남모터페스티벌' 축제의 메인 행사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주)포뮬러매니지먼트의 후원 참여로 전국 15개 대학교 16개팀이 참가했다.

'한국대학생자동차연구회'(AARK) 소속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를 비롯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영남대, 부산대, 전북대 등 1팀당 약 30여명의 팀 맴버들과 관계자를 포함 약 500여 명이 함께 했다.

정규 코스에서는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목표로 3~4일 전부터 목포, 영암 등에서 머물며 자동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대회 최종 우승은 호서대 챌린저(CHALLENGER)팀이 차지해 우승 상금 100만원과 트로피를 수상했다.

전남도의 후원으로 전남개발공사에서 매년 운영하고 있는 '전남모터페스티벌'은 모터스포츠와 레저스포츠를 접목해 지역민들과 관람객, 모터스포츠인 들이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로 진행되고 있다. 다음 행사로는 7월 '듀애슬론대회'와 11월 '전국베스트튜닝카선발대회' 등이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PGA 2연패' 이경훈 메이저대회 우승 도전

PGA 챔피언십 20일 개막

미국프로골프(PGA)투어 AT&T 바이런 넬슨에서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PGA 투어 2연패에 성공한 이경훈(31)이 내친김에 한국 선수 역대 두 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이경훈은 20일(한국시간)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서던힐스 컨트리클럽(파70·7556야드)에서 개막하는 올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PGA 챔피언십(총상금 1200만 달러)에 출전한다.

이경훈은 PGA 챔피언십 전초전 격인 AT&T 바이런 넬슨 마지막 날 최고조의 샷과 퍼트 감각으로 '노 보기 역전 우승'을 달성하면서 한국 선수 두 번째 메이저 우승 기대감을 높였다.

그동안 유독 메이저 대회에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이경훈도 이번 대회서 징크스를 깨겠다는 각오다.

이경훈은 처음 참가한 메이저 대회인 2014년 US오픈과 2019년 US오픈, 지난해 PGA 챔피언십·US오픈, 올해 4월 마스터스까지 총 5번의 메이저 대회에 출전했지만 모두 컷 탈락했다.

이경훈과 함께 2009년 대회서 우승한 양용은을 비롯해 김시우(27), 김주형(20), 김비오(32) 등 5명의 한국 선수가 우승자에게 주는 '워너메이커 트로피'에 도전한다

지난해 PGA 챔피언십에서 공동 17위에 올랐던 임성재(24)는 코로나19에 걸려 이번 대회 출전을 포기했다.

메이저 대회답게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부분 출전하는 가운데 스코티 셰플러(미국)와 욘 람(스페인), 조던 스피스(미국) 등이 우승 후보로 지목된다.

세계 랭킹 2위 람의 우승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대회서 사상 최초의 50대 나이의 메이저 챔피언에 등극한 필 미컬슨(52·미국)은 이번 대회 출전을 포기했다.

미컬슨의 구체적인 불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주도하는 리브 인비테이셔널 골프 시리즈 사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동차 사고를 이겨내고 재기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마스터스에 이어 PGA 챔피언십에서 올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나들이에 나선다. /연합뉴스

KPGA 챔피언스투어 박노석 1회 대회 우승

박노석(55)이 한국프로골프(KPGA) 챔피언스투어 1회 대회(총상금 1억원)에서 우승했다.

박노석은 17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CC(파72·6682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2라운드까지 최종합계 6언더파 138타를 쳐 2타 차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1600만원이다.

1994년 신인상 수상자인 박노석은 2005년 에머슨퍼시픽그룹 오픈까지 국내 투어 6승을 거뒀으며 2017년 챔피언스투어 데뷔 후 이날 처음 우승을 차지했다.

박노석은 "오랜만에 우승이라 감회가 새롭다"며 "작년 성적이 좋지 않아 올해 독기를 품고 훈련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길(55), 김종덕(61), 이정훈(54)이 4언더파 140타로 공동 2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범죄도시 2
2관	범죄도시 2
3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4관	범죄도시 2
5관	범죄도시 2
6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9관	범죄도시 2, 잭 인 더 박스
7관 씨네커플	아치의 노래,정태춘, 서울괴담,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8관 씨네커플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배드 가이즈, 서울괴담,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Ⅲ
Brahms's
일시 : 2022.06.03.(금)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524-5086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5.03.(화)~31.(화)
매주 화요일 ~ 토요일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